

■ 폭포신항만 '하역 중단' 장기화 우려

신항측 “누적적자 200억 ... 선적료 인상 불가피”

기아측 “일방적 계약 파기 ... 법적 책임 물을 것”

목포 신항만(주)이 선적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째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차량 선적을 거부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신항만측이 선적료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적 거부 사태 장기화로 우려된다.

◇왜 선적 거부하나=목포 신항만에 따르면 부두 건설당시 정부와 맺은 '화물 1t 처리시 5천500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협약에 의해 자동차(12t 기준) 대당 선적료로 6만6천원을 받아야 하나, 신항의 경우 현재 1만7천원을 받고 있어 자동차 1대를 선적할 때마다 4만9천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목포 신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50만대 이상 선적에 따른 누적적자가 200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선박구조물이나 컨테이너 등 수익성 높은 화물운송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선적료는 전국 모든 항만에 비슷하게 적용되고, 선적료 조정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와 신항만간의 문제”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업체는 기아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항만의 누적적자가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은 부지 조성비용 등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특히 부지사용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이에 대한 신항만측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결 전망은=신항만측이 선적거부에 돌입하자, 기아차 하역위탁업체인 대한통운·세방·동방 등 3개사는 대체 야적장으로 3만6천960㎡(1만1천200평)를, 국가기관인 목포항만청도 국가부두인 재정부두 4만8천180㎡(1만4천600평)를 확보하는 등 총 8만5천140㎡(2만5천800평)를 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3만2천500평)의 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장 하루 생산하는 700

대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야적부지로 조성하는데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진입로 사용 등 여러가지 장애물이 산적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적료 협상에 관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아차는 당분간 평택과 군산·광양으로 분산수출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수출물량을 분산할 경우 물류비용은 다소 늘어나지만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신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 이번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주력 수출항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베이징 모터쇼의 모하비 기아자동차는 20일(현지시간) 베이징 신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2008 베이징 모터쇼'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비'의 현지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기아차광주공장 제공)

기하 모하비 중국시장 첫선

베이징 모터쇼 신차발표회 ... 中 대륙 SUV 돌풍 기대

기아차의 정통 SUV 모하비가 중국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기아차는 20일 중국 베이징 '2008 베이징모터쇼'에서 전 세계 언론인,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비의 현지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하비는 최고 출력 280마력(ps), 최대토크 36.9kg.m/4,400rpm의 3.8 V6 랩다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가속성능을 확보했다.

◇후방디스플레이 룸미러 ▲차

체차세제어장치 ▲DVD & 내비게이션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 ▲경사로 저속 주행·밀림방지장치 등 최고급 사양들을 대거 적용했다.

기아차는 쏘렌토와 스포티지에 이어 SUV 플래그십 모델인 모하비를 중국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중국대륙에서 기아차 SUV 돌풍을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차량 전시회를 열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베이징모터쇼에는 모하비와 함께 올해 뉴욕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쿠퍼 콘셉트카 'KOU(쿵)'이 전시돼 중국 현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기아차 미국디자인센터에서 제작된 'KOU'는 균형잡힌 외관과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기아차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아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베이징=이종태기자 jitlee@

국세청 '성실 납세 中소' 체납시 1년간 자산 압류 유예

성실 납세 중소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서민주먹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유예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공매 이전 단계인 압류를 유예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

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통 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압류→공매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차례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 유예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1~2주) 내에 압류 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환뉴스

'사의 표명' 정태석 광주은행장 향후 거취는 중도퇴임이나 재신임이나

정태석 광주은행장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CEO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중도퇴임이나 재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수장들의 일괄교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표 제출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재임기간 실적개선 등 경영능력이 고려될 경우 재신임 가능성도 높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2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정 행장은 지난 15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CEO 등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 행장은 당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일괄 사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기관장 등을 대부분 교체 쪽으로 가다를 잡고 있고 박 회장이 사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정 행장의 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계열 은행장 임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나 방침이 지방은행까지 적용할 경우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정 행장이 지난 2004년 '낙하산'이 아닌 '영입'

케이스로 행장에 오른 데다 재임기간 경영지표를 크게 개선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재신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정 행장 취임 이후 순이익이 두 배 이상 높아질 만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며 “행장의 영업능력이 중요시되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유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와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가운데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말에 재신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스콘·주물 업체 또 생산중단 예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중단 등 집단행동을 벌였던 주물 및 아스콘 업계 중소기업이 또 다시 생산중단 등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주물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물 비대위)는 “이달 들어 원부자재 가격이 또 올라 납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1일부터 생형 주

물제품은 kg당 100원, 후관수지형 주물제품은 kg당 1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주물 비대위에 따르면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기업과 가격협상을 벌였던 지난 한 달사이 원부자재인 고철과 합금철이 각각 14~26%, 16.7%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비상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가격 인상안을 결정하고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요 업체와 가격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주물업계는 추가적인 납품단가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물 비대위 관계자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의 납품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들이 결국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납품중단을 벌이고 있는 아스콘 업계는 납품가격 산정이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부터 과천 정부청사에서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환뉴스

광주MBC 문화탐방

무안 + 황산·장가피 탐방

2008년 4월 21일 ~ 5월 10일

무안 + 장사(장가피) 탐방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문의: 062-226-6070

광주 ✈️ 북경

항로	항공사	비행시간	비행일
광주-북경	CC-81	약 3시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북경-광주	CA-200	약 3시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문의: 062-226-6070